

금년은 21세기 양돈산업을 준비하는 마지막 해

다 사다난했던 무인년을 보내고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양돈 농가 여러분과 양돈관련 기관, 단체, 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해는 6·25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 할 만큼 국가적으로 큰 위난의 해였습니다. 사상 유례없던 IMF체제를 겪으면서 정부와 기업, 가게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 수 없었으며, 생산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양돈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연초 사료가격이 40%까지 치솟고 사료구입도 어려워 가족과도 같았던 어미돼지를 조기에 출하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3월부

금년은 20세기 말이자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해로서 양돈 업계에도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금년은 말 그대로 한 세기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롭게 전개될 고도의 정보화, 세계화, 지식산업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해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도 양돈산업을 국가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이끌 사명을 부여받고 있으며, 우리 후손들에게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명복

(본회 회장 직무대행)

터 10월까지 무려 8개월 동안이나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양돈인들의 소득이 급감하고 부채가 누적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산지 돼지가격이 15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어렵자 돼지관리에서도 헛점이 나타나 돼지설사병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렸고,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앞두고 있던 제주에서는 11년만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양돈업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난해는 우리의 양돈경영 참모습을 되돌아보고,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비능률과 거품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구태와 주먹구구식 경영을 털어내고 새로운 의식과 합리적인 경영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돼지고기 수출이 전년대비 80% 이상이나 증가한 8만5천여톤에 달해 양돈산업을 수출효자산업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전축산업계가 뿔뿔 뭉쳐 마사회의 농림부 환

원을 끝내 일궈낸 것도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1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는 다행히 돼지가격이 회복세를 보여 양돈인들의 숨통을 다소나마 터주었습니다.

금년은 20세기 말이자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해로서 양돈업계에도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금년은 말 그대로 한 세기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롭게 전개될 고도의 정보화, 세계화, 지식산업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해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 도 양돈산업을 국가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이끌 사명을 부여받고 있으며, 우리 후손들에게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고 백년대계의 한국 양돈산업을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자세로 금년을 맞이하고 각오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양돈업계가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21세기에 양돈산업을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양돈산업을 덴마크와 같이 조합체제로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계열화 체제로 구축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많은 자금을 농촌에 투자했지만, 돼지고기 도축과 가공·유통 등 양돈산업을 인프라 구축에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내년 4월이 되면 일본이 돼지콜레라 비발생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추어 2000년까지 돼지콜레라를 박멸한 후 2001년에 비발생 선언을 할 계획으로 있으나, 지난해 11월 11년동안 발생이 없었던 제주도에서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등 박멸정책 추진상 많은 허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부와 양돈업계가 한 몸이 되어서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등 금년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박멸에 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대만의 구제역 예에서 보듯이,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었을 때 양돈업계가 입는 피해와 한 나라의 양돈산업을 허물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생생히 목도한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금년에는 양돈농가들에게 21세기의 양돈장 경영지표를 제시하고, 돼지고기 수급과 양돈경기 관측의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한 돼지거래 형태와 돼지고기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가일층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밀리니엄 버그로 야기될 양돈업계의 피해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양돈업계의 화합과 단결입니다. 양돈업계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이 모든 문제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에 뼈저린 경험을 한 바 있으며, 이같은 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금년에는 모든 구원을 털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양돈업계가 하나 되는 대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갑시다.

기묘년 새 해에도 양돈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양돈